

민족 고대 100년, 세계 고대 1000년

김 정 배 | 고려대총장

민족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고려대는 민족 최대의 시련기였던 1905년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잇단 침탈로 야기된 국가와 민족의 위기를 타개하고자, '교육 구국'의 신념으로 창립되었다. 이후 고려대는 한국 현대사의 격변기를 지나 오며 불의와 독재에 굴하지 않는 저항 정신으로 민족의 양심이자 비판적 지성으로서의 역할을 견지하여 왔다.

민간 자본에 의한 유일한 민족의 고등 교육 기관으

로 출발한 고려대는 현재 총 14개 단과대학(부), 32개 학과(부), 14개 대학원을 비롯하여 도서관, 출판부, 박물관 등 14개 부속 기관, 73개 연구소, 안암·구로·안산 병원 등 3개 병원을 갖추고 있으며, 4만 7천 7백여 명의 재학생과 18여 만 명의 졸업생을 자랑하는 거대한 명문 사학으로 양적, 질적 팽창을 거듭해 오고 있다.

21세기 지식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려대는 지구촌 세계 속에서 변화를 주도하는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최



▲ 중앙광장과 100주년 기념관, 종합강의동 조감도(컴퓨터 합성)



상의 인프라와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오는 2005년 개교 100주년을 앞둔 고려대는 '민족 고대 100년, 세계 고대 1000년'을 모토로 내걸고 제2의 도약을 진행하고 있다.

국제화·정보화 선도

교육에 대한 인적·물적 투자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온 고려대는 교육과 연구의 균형을 도모하고 국제화·정보화로 대변되는 환경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영어 강의(연평균 400강좌)를 도입하고 원어민 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졸업 자격 요건으로 TOEFL 또는 TOEIC 점수를 의무화하고 정보화 관련 과목을 교양 필수화하였다. 또한 국제 인턴십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 대학과의 학술 교류를 확대(20개국 80개교)함으로써 정보화 감각을 갖춘 국제적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속에서 숨쉬는 고대

최첨단 어학 실습 기자재를 갖춘 국제관에 마련된 국제 어학원은 수준별 어학 프로그램, 다양한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본교생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확대해 가고 있으며, 해외 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울 수 있는 한국어 교육 센터를 운영하는 등 세계화·개방화 물결에 부응하고 있다.

모든 강의를 영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제 대학원은 폭넓은 장학 혜택과 함께 국제 통상가, 지역 전문인을 양성하는 국내 대표적 교육 기관으로 새로운 선진 교육 방식을 꾸준히 실시해 온 결과 1996년 국책 대학원으로 선정돼 국고 지원금을 받고 있다.

물론 고려대의 학문적 전통을 살린 한국학의 세계화 역시 민족 문화 연구원 및 박물관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Intelligent Campus 실현

고려대는 1997년 7월 정보화 추진 본부를 설립하여 초고속 정보 통신 인프라 구축, 각종 정보 시스템의 통합, 디지털 대학 설립 등 교육과 행정의 정보화를 능동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다.

교수-학습의 정보화 일환으로 각 대학에 화상 강의실을 설치하고, 1996년부터는 외국 대학과 원격 화상 강의를 실시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 열린 사이버 대학에 참여하여 2년간 인터넷 강의를 개설·

운영한 결과 최우수 대학으로 평가받아 오는 2001년 3월에는 언론사 및 기업체의 협력으로 한국 디지털 대학을 개교할 예정이다.

1994년 자동화 프로그램의 도입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된 도서관 전산화로 1998년 대학원 졸업 논문에 대한 DB를 구축한 고려대는 2000년 현재 학위·교수 연구 논문 및 국내 학회지 100여 종과 E-Journal 3,300여 종의 전문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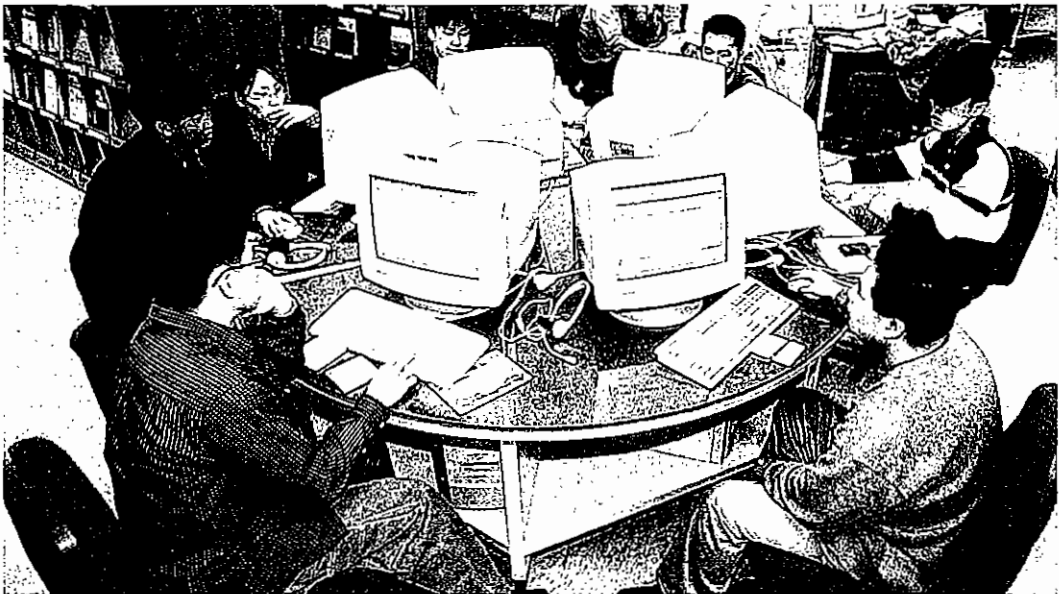
한편 고려대는 전임 교원의 책임 시간을 6시간으로 감축하고 1교수 1조교제를 도입한 것을 비롯하여 교원 창업 및 겸직을 허용하는 등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하고 있다. 이 결과 본교 교수들의 연구 업적(1999년 1인당 논문 발표 실적 6.0건 1.80편)과 연구비 수혜 실적(1인당 3천 7백만 원)이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하였다.

우수한 교육 환경

계속된 학생들의 복리 후생에 대한 투자로 최근 2

년 사이 아이스링크, 서창 학생 회관, 자연계 생활관, 대천 수련관 등 문화·복지 시설이 잇달아 준공되었으며, 올해 말 계통 예정인 6호선 역사가 한국 대학 최초로 캠퍼스 내 설립되어 학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건물들의 리모델링을 통해 현대식 수업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교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현재 대운동장을 지하 공간에는 열람실, 사무실, 학생 편의 시설, 지상에는 자연 공원이 들어서는 중앙 광장으로 개발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박물관, 다목적홀, 기념홀, 학술 정보 전자 도서관 등이 들어 서게 될 100주년 기념관과 대형 강의실, 피트니스센터 등이 마련되는 종합 강의동, 의료원 내 특수 진료 센터 등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건물들이 2005년까지 건립될 계획이다. 이로써 고려대는 국내 명문 사학 1백년의 전통을 새로운 1백년에는 세계 속의 명문으로 발전시킬 양적 질적 역량을 갖춘 대학으로 새롭게 단장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입시 개혁

고려대는 교육의 근본이 우수한 학생의 유치에서 비롯된다는 기치 아래 고교 교육의 정상화와 본교의 교육 목표에 적합한 인재의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도입해 입시 제도 개혁을 주도하여 왔다. 지역 순회 논술 설명회, 고교 방문 입시 간담회, 다양한 입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입시 정보지 발행, 학생 선발의 지역 할당제나 교육 기회 균형 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입시 개혁은 본교가 독창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제도의 일부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고려대 입학 관리실은 1999년 ISO9001의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2000년 6월 30일자 「Asiaweek」지의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학생 선발 부문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효율성·전문성 목표 대학 최초 구조 개혁 단행

고려대는 2005년까지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1990년대 들어 기존의 제도와 관행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지속적인 행정 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최근 2년간 Monitor Company의 컨설팅 보고서에 입각하여 교직원 직제를 개선하는 한편 입학 관리실의 신설, 기획실의 분리, One-Stop 서비스센터의 설

치 등 조직의 슬림화와 전문화를 추구하는 개편을 단행하고 교수 및 직원에 대한 평가 제도를 재정비하는 등 대학 최초로 구조 개혁을 전개하였다.

이 외에도 고려대는 1995년부터 그룹웨어인 핸드오피스를 도입하여 행정 업무의 무서류화 및 전자 결제를 추진해 왔으며, 1999년 말에는 One-Stop 서비스센터를 개소해 수요자 중심의 행정 체계를 정비해 가고 있다.

창조적 지성인을 양성하는 고려대

국경과 시공의 한계를 넘어서는 정보화, 국제화의 물결은 더 이상 폐쇄적이고 경직된 사고를 허용하지 않으며, 인간의 한계를 끊임없이 갱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시대를 앞서 읽고 변화의 물꼬를 트는' 지성의 산실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해 온 고려대는 새로운 세기를 맞아 강렬한 탐구 정신과 진취적인 개혁 정신으로 무장한 창조적인 지성의 소유자를 양성하며 연구, 교육, 사회 봉사 등 대학의 3대 기능을 균형 있게 발휘하는 미래지향적인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다. 창조적 지성, 열린 지성, 실천하는 지성을 갖춘 고대인들은 새 밀레니엄의 시대 정신에 걸맞는 새로운 모습으로 고려대의 새로운 세기를 개척하고 있다. 